

# “광주 차 부품 클러스터 국가경제 파급 가장 커”

### ‘자동차산업 미래와...’ 컨퍼런스서 최종일 교수 지적 “타지역보다 특화 안돼 완성차 생산 효율성 떨어져”

광주시 자동차 부품산업 클러스터가 국가 경제 전체에 미치는 파급효과 그리고 타 지역의 생산에 미치는 영향력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자동차부품 산업은 포항~울산~경남 남부의 대경권과 경기 남부~아산~당진을 중심으로 한 충남 서북부지역에 비해 특화되지 못해 완성차 생산 효율화와 차별화가 극대화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17일 광주 서구 라마다플라자호텔에서 ‘자동차산업의 미래와 광주의 선택’이라는 주제로 열린 컨퍼런스에서 조선훈 최종일 교수는 “자동차 부품 제조를 중심으로 하는 클러스터의 경제적 파급효과 측면에서 광주시가 최적지”라며 이같이 밝혔다.

최 교수는 이날 ‘산업연관네트워크 분석을 통한 광주시 자동차산업육성 타당성’이라는 연구 주제 발표를 통해 “다른 지역 산업들과의 연관성 분석에서 광주시의 자동차 제조업, 자동차엔진 및 부품 제조업은 가장 높은 파급효과를 보여주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최 교수는 “광주시에 자동차 산업 클러스터를 구축하는 것이 다른 지역과의 동반 성장 측면에서 가장 유리하다는 점을 알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광주와 전북은 완성차의 특화지역이지만, 자동차 부품산업은 특화되지 못해 완성차 생산의 효율화와 차별화가 극대화 되지 못하고 있다”면서 “따라서 호남지역 자동차 클러스터의 경쟁력과 생산 효율성을 증대시키기 위해서는 지역 특색에 맞는 자동차 부품산업의 육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 광주시의회-필리핀 일로일로시의회 상호협력 양해각서

광주시의회와 필리핀 일로일로시의회가 양 도시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번영을 위해 상호협력하기로 했다. 필리핀 일로일로시에서 열린 ‘제3회 UEA정상회의’에 참가 중인 조영표 광주시의회 의장과 김용집 환경복지위원장을 비롯한 광주시의회대표단은 16일 일로일로시청에서 양 도시 의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일로일로시의회(의장 제드 패트릭 마빌로그)와 상호협력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제3회 UEA정상회의’에 참가 중인 조영표 광주시의회 의장과 김용집 환경복지위원장을 비롯한 광주시의회대표단이 16일 필리핀 일로일로시청에서 일로일로시의원들과 함께 상호협력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있다. <광주시의회 제공>

## 전남도, 무안공항 컨베이어시설 확장 추진

### 중국 수출 확대·관광객 유치 ‘대중국 현안과제 대책단’ 회의

전남도와 한국공항공사 무안지사가 무안공항 활성화를 통한 중국 수출 확대 및 관광객 유치를 위해 무안공항 컨베이어 시설 확장사업 추진에 공동 노력하기로 했다. 전남도는 17일 “친환경 농수산물과 식

품 수출 확대, 중국관광객 유치 등 중국 관련 현안문제 애로사항 해결을 위한 ‘대중국 현안과제 대책단’ 2차 회의를 지난 16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는 심층 논의과제로 선정된 ▲무안국제공항 중국 노선 확대를 통한 중국 관광객 유치 ▲대중국 농수산물 품 해외마케팅 확대 ▲과채류 수출 전문 협단은실단지 조성 ▲수산양식기술 공동 연구협력 등 4개 과제 추진 현황과 앞으로

의 계획을 점검했다. 이어 각 과제에 대한 애로사항과 문제점으로 제시된 우수과(중국관광객) 유치를 위한 무안공항 인프라 확충 방안, 중국 농수산물 수출 확대를 위한 중국 통관 애로 해소 방안, 유기농 과채류의 생산·가공 및 수출방안, 수산양식 연구기술 교류 및 공동연구 방안 등에 대해 활발한 토론과 다양한 해결 방안이 제시됐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 공직자 금품수수·부패행위 감독자도 처벌

### 전남도 징계 규정 세분화

앞으로 전남도 공직자가 금품수수 부패행위에 연루되면 당사자는 물론 그 행위와 관련된 감독자 및 그 행위 행위의 제언·주선자까지도 처벌을 받게 된다. 전남도는 오는 30일까지 임박예고된 ‘전라남도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청취한다.

등이 신설됐다. 또 성폭력과 관련된 비위 유형에 업무 무상 위력에 의한 성폭행과 장애인 대상 성폭력을 추가하고 성희롱·성매매를 각각 구분해 징계기준을 정했다. 음주운전과 관련해서는 중징계, 직권면직 등의 처분기준을 파면·해임, 강등·정직 등으로 구체화하고 2회 음주운전 징계기준을 기존 정직·강등에서 해임·정직으로 강화했다. 청렴의무 위반 행위에 대한 징계양정도 개별기준을 만들고 금액별로 징계사유를 세분화시켰다. 예를 들어 공금 등 횡령은 100만원 이상 파면, 50만~100만원 해임 이상, 50만원 미만 정직 이상 등으로, 공금 등 유용에 대해서는 300만원 이상(정직 이상), 300만원 미만(강등 이상) 등으로 정했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 전남도, 첫 수산분야 직불금 내달 12일까지 접수

### 오징어·참다랑어·가리비 대상

전남도는 수산분야 오징어(갑오징어 제외), 참다랑어, 가리비를 대상으로 자유무역협정(FTA) 피해보전직접지불금과 폐업지원금 신청을 도내 16개 연안 시·군에서 오는 10월 12일까지 접수한다. 수산분야 직불금 지급은 이번이 처음이다. 피해보전직접지불금은 자유무역협정(FTA) 이행으로 수입량이 급격히 증가해 가격 하락 피해를 입은 품목 어업인들에게 일정 부분 지원하는 제도다. ‘폐업지원제’는 수산물을 포획·채취·양식하는 어업인들이 폐업하는 경우 이를 지원하는 제도다. 피해보전직불금은 해당연도 직전 5년간 어업(업종)별 어선 1당 또는 단위면적

당 평균 생산량의 최고·최저치를 제외한 3년간 평균 가격의 90%를 지원해준다. 직불금 신청 자격은 어업인 또는 어업법인이다. 가리비와 오징어는 2011년 8월 1일(한·페루 FTA 발효일) 이전에 생산 실적이 있으면서 지난해에도 해당 품목을 생산한 어업인, 참다랑어는 2013년 5월 1일(한·터키 FTA 발효일) 이전에 생산 실적이 있으면서 지난해도 해당 품목을 생산한 어업인이 해당된다. 신청을 희망하는 어업인은 어업허가(근해어업은 선적지)와 양식면허 또는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시장·군수에게 지급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갖춰 신청하면 되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해당 시·군에 문의하면 된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 아이쿱생협, 농업박람회 입장권 5000만원 구매

### 조직위와 약정 체결

2015국제농업박람회조직위원회는 지난 15일 전남도청에서 아이쿱생협과 박람회 입장권 구매 약정을 맺었다. 김영선 전라남도 행정부지사, 정원각 아이쿱협동조합지원센터 이사장 등이 참석한 이날 약정식에서 아이쿱생협은 5000만원 상당의 박람회 입장권을 구매했다. 전남도와 아이쿱생협은 지난 4월 친환경 유기농업 발전과 2015국제농업박람회 성공 개최를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오미에 아이쿱생협사업연합회 이

사장을 2015국제농업박람회 명예홍보대사로 위촉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아이쿱생협은 전국의 아이쿱생협 자연드림 매장을 통해 홍보전단과 포스터 배부 등 박람회 홍보에 앞장서고 있다. 이외에도 박람회 기간 중 아이쿱생협 소비자 초청행사를 개최할 예정이다. 2015국제농업박람회는 오는 10월 15일부터 11월 1일까지 18일간 ‘창조농업과 힐링의 세계’라는 주제로 나주에 자리한 전남도농업기술원 일원에서 열린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고흥에는 건강한 맛이 있다**

깨끗한 바다, 건강한 토양,  
정직한 사람들의 정성이 모여져  
고흥에서는 365일 건강한 먹거리들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고흥청정마켓**  
www.goheungmarket.com  
1577-8793